

HRI 체어퍼슨노트

# CHAIRPERSON NOTE

2011.05.09 (통권347호)



## 경제이슈

글로벌 상품가격 급락

한-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

## 경영노트

아웃 소싱을 통한 제품 개발의 성공 원칙

## 사회 트렌드

학령인구 비중 40년 만에 '반토막'

30대는 '반골세대'

## 저널 브리프

아직 남아있는 미국의 '뇌관'

## 洗心錄

불광불급(不狂不及), '미치지 않으면 다다르지 못한다'

□ 글로벌 상품가격 급락

- 서부텍사스산중질유(WTI) 가격이 급락하여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100 달러 이하를 기록하고, 금은 및 국제원자재가격도 급락
  - 국제유가 급락 : 5일 거래된 WTI는 전일 대비 10달러 이상 하락한 배럴 당 99.1달러를 기록하여 지난 3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아래로 하락.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일대비 8.53달러 하락한 112.75달러를 기록
  - 국제 금·은 가격 하락 : 국제 은가격은 전일대비 8% 폭락하며 4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며, 국제 금가격 또한 최근 3일 연속하락하며 온스 당 1,500 달러 붕괴
  - 글로벌 상품 가격 하락 : 글로벌 원자재상품가격을 나타내는 CRB 지수 또한 2년래 최대하락폭을 나타내며 전일대비 17.6p하락한 341.07을 기록
- 달러 강세의 영향과 함께 중국 긴축 움직임 및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국제 상품가격이 일제히 급락. 향후 달러 강세 지속여부가 글로벌 상품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

□ 한-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

- 한국-유럽연합(EU) 자유무역협정(FTA)의 비준 동의안이 5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 예정
  - 경제규모 : EU의 국내총생산은 16조 4,000억 달러로 전세계 GDP의 30% 차지, 한국과 교역규모는 922억 달러(수출 535억 달러, 수입 387억 달러)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 상대
  - 수출 : 자동차(배기량 1.5L 이상 승용차 기준)의 경우 10%인 EU지역 관세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유럽내 가격 경쟁력 상승, TV·냉장고 등 전자업종은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 증가 기대
  - 수입 : 유럽 수입차 대한 관세가 사라지며 국내 자동차 시장 경쟁 격화, 농축수산물은 20% 안팎의 수입관세 철폐에 따라 수입 증대 전망
-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교역할, 거래규모 확대 따른 고용 증대, 국가 이미지 제고 등 긍정적 효과 기대

□ 아웃 소싱을 통한 제품 개발의 성공 원칙<sup>1)</sup>

- 제품 개발 과정의 각 업무들을 아웃소싱하는 것<sup>2)</sup>은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이에 따른 복잡성 및 불확실성의 증대는 불가피함
  - 불확실성의 문제는 조직 간의 산업, 지리, 문화적 차이 등을 의미하는 경계(Boundaries)에서 발생하며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임
  
- 아웃소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직 간의 경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과정의 가치사슬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중요함
  -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비용과 시간, 설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신제품에서 필요한 부분과 포기해야 할 부분을 결정해야 함
  -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완료 시점까지 신제품이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유지함과 동시에 각 조직 간 의사소통의 통합 능력이 중요함
  - 문제 발생 시 해결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품의 핵심 기술, 운영 및 관리, IT 기술, 금융 등 프로젝트 각 분야의 지식이 필요함
  
- 대규모 제품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돌발 변수는 불가피함을 인지하고 예측 능력과 민첩성 등을 통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

< 아웃소싱을 통한 제품 개발의 성공 원칙 >

구분	내용
제품 개발의 생태계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제품 개발 과정은 수많은 부품과 조직의 병렬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각 부분의 특성과 어떤 부분이 핵심 영역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</li> <li>• 이를 바탕으로 각 조직들을 경계가 발생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인소싱과 아웃소싱, 핵심영역과 비핵심영역 등을 배분해야 함</li> </ul>
경계 폭을 줄이기 위한 계획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각 개발 단계를 분해하여 모듈화한 개발 방식은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단계와 조직의 수가 증가할수록 경계의 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음</li> <li>• 따라서 각 단계를 완벽하게 계획하고 조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간의 연결 고리를 찾아 경계의 틈을 메우는 방법을 찾는 것임</li> </ul>
변화를 위한 대응력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도 개발과정에서의 돌발변수는 불가피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초기 계획과는 다른 결과로 종료됨</li> <li>• 변화에는 위험 외에 신기술개발 등 긍정적 요소까지 포함되며, 개발 기간 동안 변화에 대응하여 진화할 수 있는 유연성과 민첩성이 필요</li> </ul>

1) 본 자료는 ‘Putting It Together: How to Succeed in Distributed Product Development(MIT Sloan Management Review, 2011, 겨울호)’를 요약 정리함

2) DPD: Distributed Product Development

□ 학령인구 비중 40년 만에 ‘반토막’<sup>3)</sup>

- 학령인구(초·중·고교와 대학에 다닐 만한 연령대인 6~21세의 청소년) 비중이 4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
  - 지금은 인구 5명 중 1명꼴인데, 40년 뒤엔 이마저 반 토막이 나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
-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 수는 지난 해보다 19만 2000명 감소한 970만 9000명(전체 인구의 19.8%)으로 집계
  - 학령인구 비중은 1970년 40%에 달했지만 지속적인 저출산 추세 속에 40년 만에 그 비중이 반 토막나게 된 것임
  - 향후 이런 감소세는 더욱 지속되어 40년 후인 2040년이 되면 올해의 절반 정도인 10.9%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. 학령인구 감소는 결국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

□ 30대는 ‘반골세대’<sup>4)</sup>

- 취업전쟁을 치르고 있는 20대, 486세대로 특화되는 40대 사이에서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던 30대가 최근 정치·사회·문화적으로 반항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음
  - 1972~81년에 태어나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지금의 30대는 트위터·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를 통해 활발히 소통하며 각종 선거 때마다 반정부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
  - 30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경제적 혜택과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성장했지만 두 차례 경제쇼크(97년 외환위기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)를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보다 훨씬 충격적이고 냉엄한 현실을 체험
-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세대에 비해 훨씬 반골의 행태를 드러내고 있음
  - ‘나는 하위계층이다’란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62.7%로 현재 생활에 대한 불만이 많음(20대는 35.5%에 불과)
  - ‘계층 상승 기회 열려져 있지 않다’는 질문에 79.7%, ‘정부는 전체 국민 대변하지 안해’ 76.1%, 차기 대선 정권 교체해야’ 76.1%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이 비율은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수치임

---

3) “학령인구 비중 40년 만에 반토막”(한국일보, 2011.5.3) 참조

4) “30대 반골세대”(중앙SUNDAY, 2011.5.8-9) 참조

□ 아직 남아있는 미국의 ‘뇌관’<sup>5)</sup>

■ 미국의 경제가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곳곳에 ‘뇌관’이 숨어있어 이들 요인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

① 휘발유 가격의 급등

- 현재 미국 내 휘발유 값은 한 달 만에 갤런당 30센트, 1년 전에 비해 1달러나 상승하여 평균 3.87달러를 기록하고 있음
- 그 결과 미국인들은 자동차 한 대를 가득 주유하는데 한 달 전보다 15~20달러를 더 지출하고 있어 가계 경제에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

② 근로조건의 질적 하락

- 지난 2월과 3월 연속으로 2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되찾으면서 미국 경제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였던 고용시장이 회생조짐을 보임
- 하지만 일자리를 얻었더라도 불경기 시절의 저임금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실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불만족스러운 수준임
- 특히 지난 금융위기에 대거 사라진 임금이 높은 일자리는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어 가계 소득 상승률은 매우 미미한 상황임

③ 여전히 암울한 주택시장

- 미국 불경기의 진원지였던 주택시장에서는 아직도 모기지를 제때 갚지 못해 집을 빼앗기는 압류사태가 지속되고 있음
- 이처럼 압류된 주택은 팔리고 있는 전체 주택의 25%를 차지하고 있어 주택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④ 위축된 소비시장

- 금융위기 이전에는 미국인의 소비가 미국 경제의 70%를 차지했을 만큼 미국경제는 전적으로 소비시장에 의존해 가동해왔음
- 하지만 지속되는 저임금과 집값 하락세, 물가상승은 미국의 소비여력을 고갈시켜 소비시장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

⑤ 막대한 재정적자

- OECD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10.5%에 달하며 미국 정부의 부채규모는 GDP 대비 92.8%에 이름
- 하지만 미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재정적자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

5) 「미국 경제, 아직도 곳곳에 ‘뇌관’」(시사저널, 2011.5.10), 「美 재정적자 사상 최대… 세계경제 발목 잡나」(조선일보, 2011.4.14) 참조

□ 불광불급(不狂不及), ‘미치지 않으면 다다르지 못한다’

불광불급(不狂不及)은 ‘미치지 않고는(不狂) 미칠 수 없다(不及)’는 의미로 모든 일에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다. 다시 말해 ‘미치기 위해서는(及) 미쳐야(狂) 한다’는 것이다.

여성 최초 노벨상 수상자, 최초 노벨상 2회 수상자 등 항상 ‘최초’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 폴란드 여류 과학자 ‘마리 퀴리(maria skłodowska curie)’의 예를 보자. 마리는 대표적 업적 중 하나인 방사성 물질 ‘라듐(radium)’의 존재를 논문에 발표했다. 하지만 학계는 연구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으며 “라듐의 실체를 보여 달라”고 요구하였다. 마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하기도 쉽지 않은 역청우라늄(歷靑, 우라늄을 함유한 광석 중 하나)에서 라듐을 추출하는 일에 3년간을 매진했다. 그동안 연구에 활용된 역청우라늄 원광(原鑛)은 8톤에 달했으며, 결과적으로 마리가 얻은 라듐은 0.1그램에 불과했다. 하지만 이를 통해 마리는 자신의 논문을 입증할 수 있었다. 또한 그녀는 방사선이 불치의 질병으로 알려진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. ‘방사선이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다’는 단초를 제공해 준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사망 원인이 된 ‘방사능 피폭(被曝)’이었던 것이다.

‘미치지 않으면 다다르지 못한다’란 말은 바로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일 것이다. ‘불광불급’은 중국의 고사성어가 아니라 수년전 국내 대학의 한 교수가 한시(漢詩)를 풀이한 책에서 언급한 신조어(新造語)다. 급변하는 무한 경쟁시대에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대적 배경이 이와 같은 단어를 만들어내게 한 것일 수 있다.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가올 변화에 대비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. 우리의 열정과 몰입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경지에 미친다고 하면 한번쯤은 미쳐 볼 만 하지 않은가

I believe that one of life's greatest risks is never daring to risk.  
조금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일 것이라 믿어요.

- 오프라 윈프리(1954~ ) : 미국의 방송인